

GILLETTE

NO RETURN, PLEASE.



FERDINANDO FREGA
A MEMOIR OF CORPORATE MISUNDERSTANDING AND LITERARY REFLECTION

GILLETTE, 반품은 사절합니다

THE SYSTEM · 07

나는 2003년 12월 1일 어머니 Gillette를 떠났다.

나는 기업의 세계에서 걸어 나왔고, 18년 동안 맡아 온 자리를 뒤에 남겼다.

극적인 결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낡은 양복 한 벌을 옷장에 다시 걸어 두고, 다시는 입지 않기로 마음먹는 일에 가까웠다.

해어져서가 아니었다.

그저 그것이 더 이상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양복을 찾아 나섰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미래를 담을 만큼 넉넉한 양복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들은 끝날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기다린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에게 청구서를 보낸다.

거의 23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길에서 나를 붙잡고 말한다.

“Gillette로 다시 일하러 돌아가셨다니 정말 기뻐요.”

문제는 내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일은 놀라울 만큼 어렵다.

그다음엔 이론들이 나온다.

“이제 그 유명한 브랜드의 새 출판 부문인 GILLETTENARRATIVE를 이끌고 계시는군요.”

그 순간, 현실은 공식적으로 방을 떠난다.

대개는 다음 질문이 이어진다.

“도대체 어떻게 해내신 거예요? 예순한 살에, 대학 학위도 없고, 이탈리아어 성적은 화려하게 4점인데.”

나는 무엇이랴 답해야 할지 거의 모른다.

그러다 옛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다.

몇몇은 그 브랜드 안에 자기들에게도 자리가 있을지 정말로 알아보고 싶어 하는 눈치다.

그때 나는 아무도 내게 설명해 준 적 없는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문학에는 아무도 미리 경고해 주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그걸 일찍 알았더라면, 더 조용한 직업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남시 같은 것.

영업만은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내 고향의 시장까지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가 누군가를 채용해 달라며 우리 집 현관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그러면 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것이다.

나에게는 사무실이 없다.

본사도 없다.

인사부도 없다.

책상 하나뿐이다.

키보드 하나.

그리고 한평생 분량의 이야기들.

나머지는 내가 지니고 다닌다.

솔직히 달리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기 때문이다.

Gillettenarrative.com에 온 것을 환영한다.

당신의 메시지는 한 사람의 인간이 읽습니다.

대개 책을 쓴 바로 그 사람입니다.

P&G, Gillette, BIC, Wilkinson, Schick, L'Oréal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안내

메시지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품, 주문, 배송, 거래 문제, 불만 접수, 가격표, 특별 가격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slow moving'(저회전) 품목을 포함해 어떤 종류의 주문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지만, 저희의 일이 아닙니다.

Pampers 주문과 관련해 연락 주신 New York의 도매 고객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Cincinnati에 있는 공급업체에 직접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호의로 고객님의 연락을 전달해 드리는 것만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 현실과 만나는 하나의 공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여러분을 저희의 편집 공간에 무료로 기꺼이 맞이하겠습니다 — 누구도 결코 지울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안에서 쌓은 58년의 경험.

Ferdinando Frega

owner@gillettenarrative.com

Ferdinando